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

기도서 508면 (C해)

제1독서 : 지 혜 3, 1-9
제2독서 : 로 마 8, 31-39
복 음 : 루 가 9, 23-26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
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루가 9, 24).

□ 강론



멀기만 한 순교정신

김진소 신부

어느 교단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거 우리나라가
끼니거리를 어렵게 지내던 시절 보릿고개의 배고팠던 이
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한 학생이 선
생님께 통명스레 하는 말이 “선생님 굶기는 왜 굶습니
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말인즉 옳은 말이다. 그 시
절의 상황과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법한 말
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순교자들의 경우로 옮기면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죽진 바보같이 왜 죽어. 쟁싸게 도망
가던가, 요령껏 피하던가, 아니면 배교하는 척하고 언젠
가 시절이 좋아지면 성사보고 믿을 일이지.” 조상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모르면 그런 말이 나올
만한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한국 순교성인전을 읽으면 몇 장을 넘
기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성인전의 내용이 하나같이 사
로 비슷하여 몇 분의 전기만 읽으면 더 읽고 싶지 않다
는 것이다. 성인전이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뿐
아니라 선조들의 신심을 설명하면서 각자의 자기 다른
처지에서 믿어온 상황을 설명하였더라면 그렇지 않은 것
이다.

순교정신을 생생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는 그 시대의 역사, 종교, 정치, 사회를 알아야 한다.

성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예수님 시대
의 종교, 정치, 사회 뿐 아니라 언어까지 공부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에서이다. 우리의 성인들은 한국인이요 우
리와 같은 문화 속에서 살으셨던 분들이니 생소하게 느껴
진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문화와 역사의 단절 때문이
다. 신체가 절단되면 불구자요, 사람과 사람끼리 마음이
단절되면 불목이요, 교통이 단절되면 불통이요, 나라가
갈라지면 분단이다. 이러한 단절은 불행이요 가슴아픈
상태이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의 단절을 가슴 아프게 여
기는 사람은 적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외국문화를 우리문화로 착각
하는 병이 중중에 걸려 있다. 한국 것은 모르면서 외국
것을 많이 알고 서구화된 사람을 가장 유식한 지식인이
고 문화인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을 ‘국적없는 사람’으
로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가 순교정신을 찾는 것은
그 시대 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선조들이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견디었고 믿음을
증거하며 살았는가 그 지혜를 배우려는 것이다. 한국 성
인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 속에 태어난 성인이다. 우
리가 그 시대의 신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한 순교정신은 우리에게 생소하고 멀기만
여겨질 것이다.
(호남 교회사 연구소)



30억의 눈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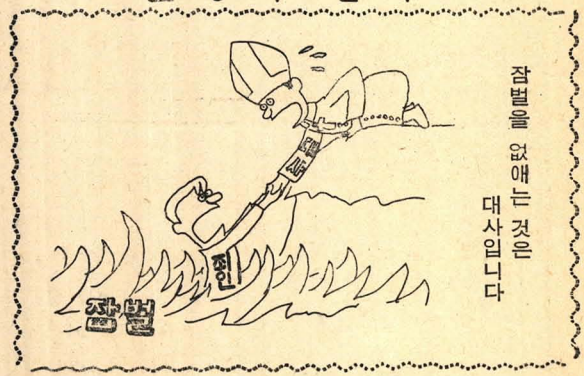
마음에 흐뭇하게 차지 아니할 때, 우리는 불만을 느끼
게 된다. 이 때에 높이 사야 할 불만이 있다. 그것은 차
원높은 기대감이 무너질 때 터지는 불만이다. 그 불만에는
「잘해보자」는 속깊은 충정이 진하게 담겨 있기 때문
이다.

전주에 거창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널따란 대지 위
에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지는 한국은행 전주지점 건물이
바로 그것이다. ‘은행의 은행’이라 불리우는 중앙은행인
지라 시민을 상대하기 보다는 은행을 상대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본건물은 몰라도 담장에까지 화강석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하기가 집을 튼튼하고 멋있게 지
어서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이 어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절약과 검소를 부르
짖는 중앙은행의 사치로움(?)이 눈에 거슬려 불만을 느
끼게 되는 것이다.

아시아 게임도 마찬가지다. 하기로 된 일이니 잘해야
한다. 그런데 성화봉송 행사만 해도 조금은 너무한다는
느낌이다. 아무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학생들을 연도에 동원하면서까지 화합·진
진·번영의 명목으로 동해안·내륙·서해안의 세 코스를
달려야 할까? 더군다나 쾌속정과 비행기로까지.

80년 이후에 늘어난 외채 때문에 뜻있는 국민들은 격
정이 크다. 양담배 문제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피우지
말자」는 자발적인 국민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토록 나
라 살림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본다면, 아시아 게임
은 검소하게 치뤄야 한다. 이러한 애국충정을 높이 사
지는 못할망정,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쳐서는 안된다. 진
정한 화합과 진진, 그리고 번영의 길은 우리 모두 서로
절약하고 힘을 모으는 데에 있다. 30억의 눈초리가 우리
를 비웃지 말도록.

숲정이 산책



잠벌을 없애는 것은
대사입니다

잠벌

순교(殉教)란 무엇인가?

—순교자의 성월—

순교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찍이 오리게네스는 신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구세주의 뒤를 따르는 행위를 양심의 순교라 불렀고, 아일랜드의 수도원에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이 애호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행위를 백색(白色)순교, 고통을 극복하고 속죄하는 행위를 녹색순교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의 순교는 아니다. 순교는 박해를 계기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박해없이도 가능하다. 그 예로 그리스도교의 정덕(貞德)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당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순교는 죽음에 직면하여 신앙의 의미와 진리를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행위이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육신을 죽이는 자를 초월하는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순교의 목표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그 가치는 최고의 존재자를 긍정하는 일이다. 또한 인간이 다른 인격을 긍정하는 것은 사랑이므로 순교는 곧 사랑의 행위이다. 이는 신앙의 근본을

증거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분을 증거하는 행위이다.

순교를 높이 평가하는 그리스도교적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삶의 실재를 증거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순교를 통한 죽음이 성부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순교자의 생명을 일치시킨다는 진리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초기시대 이래 순교자를 공경해 왔으며 모든 성인의 통공 속에 순교의 의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고 되새긴다.

이처럼 순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 자기를 봉헌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 때부터 순교를 혈세(血洗)라 하였다.

순교는 최상의 은혜요 사랑의 최고 증명일 뿐 아니라 성세생사의 상징을 실제로 구현하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며 함께 부활하기 때문이다 (로마 6:3~11).

순교자의 성월—소중한 목숨을 구하여 방어하려 들지 않고 기꺼이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성서교설 ⑤⑦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 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루가 9:25)

이 말씀은 「수난에 대한 첫번째 예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전세계를 인간이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매일 매일의 노력은 결국 되도록이면 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전력을 다해서 전세계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 외 다른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세계를 얻을지라도 인간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루가 12:16 이하)를 잘 알고 있다. 사실 인간의 행복욕은 무한하다. 혹시 인간이 이러한 욕구를 채운다 하더라도 한평생을 마치고 죽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결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인생에 있어서 참다운 진리를 터득하고 세상을 「원수」로 알고 생활한 채, 영원한 생명에 돌입한 분이 주 예수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면서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필립 3:8).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미이다. 최후심판 때 인간이 죽음의 선교를 받을 것을 말한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사상적인 이야기도, 아름다운 꿈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진실을 가지고 믿어야 할 신앙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백병전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창세 25:21~34, 호세 12:3, 롬 9:10~13) 에사오를 비웃을 자격이 없다. 우리도 세상의 재물, 지위, 명예, 행복, 가정, 사업, 학문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팔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원한 생명은 「세상」을 가지고는 못 산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한일 씽크전시장
가스렌지 일절
영업용 씽크 전시판매장
이리시 중앙동 3가57-8
전화 3-2676
이 문 희
강 영 자(사비나)

이리 금강안경원
교우 우대함
☎ 54-5130
(상업은행 옆)
김 감 석
김 숙 자(마리안나)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 의 황 수 경
이 승 열(엘리아)
☎ 전주 2-7272
판통로 서서울신탁은행건너편 골목



천주교전주자치교구설정 50주년기념

밝히오리다

제2호 1986. 7. 6. / 편집·발행 : 50주년기념 중앙위원회 홍보부 © 0041~3



순교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되어-

김 환 철 신부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마태오10,26).

순교자들의 삶은 화로속에 덮혀진 숯불처럼 밖에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재를 후비어 보기만 하면 믿음의 뜨거운 불씨가 빨강게 달구어져 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죽음의 삶을 살도록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음은 순교자들의 믿음에서 가장 강하게 용화(融化)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순교자들은 이 귀하디 귀한 생명을 주님께 봉헌하므로써 십자가의 사랑을 보답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증거를 표출(表出)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순교자들은 성서에 기록된 말씀을 신명(神命)으로 믿었기에 자기의 목숨을 오롯이 봉헌하는데 고통보다는 오히려 큰 영광임을 순교의 형장에서 보여주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 죽음도 생명도 그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하

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로마서8,35).

우리는 훌륭한 순교자들의 후손들임을 자각하면서 마냥 그들의 삶에 경탄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바로 우리의 삶이 순교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행사가 순교자들의 믿음을 온 누리에 밝혀, 우리의 삶을 투영(投影)시키는 물론 자손만대에 선열들의 훌륭한 삶을 유산으로 남기고자 함이 이번 기념행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치명자산 개발, 순교성지 성역화, 피정의 집을 짓고 교구사를 편찬하여 그들의 넋을 담아 후손들에게 물려줌이 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겠는가?

우리는 부모도, 형제도, 재산도, 명예도, 필경 생명까지 바친 순교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되어 우리 자신들을 새로이 봉헌하므로써 새로운 교회되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봉헌하자.

(교구 총대리)

邦人自治教区 (방인자치교구) —

이는 하루 아침에 붙여진 값싼 이름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했고 사도교회, 초기 한국교회가 그러했듯, 죽음으로 맞은 개선, 부활의 이름이요 박해속에 피어난 영광의 표징이다. 옹기술에 묻혀 흙으로 연명하며 뜨겁게 신심을 달구어 내던 신앙의 피난민, 우리 조상들의 열심을 되찾지 않고서는 「자치교구」란 어쩌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송구스런 이름이 돼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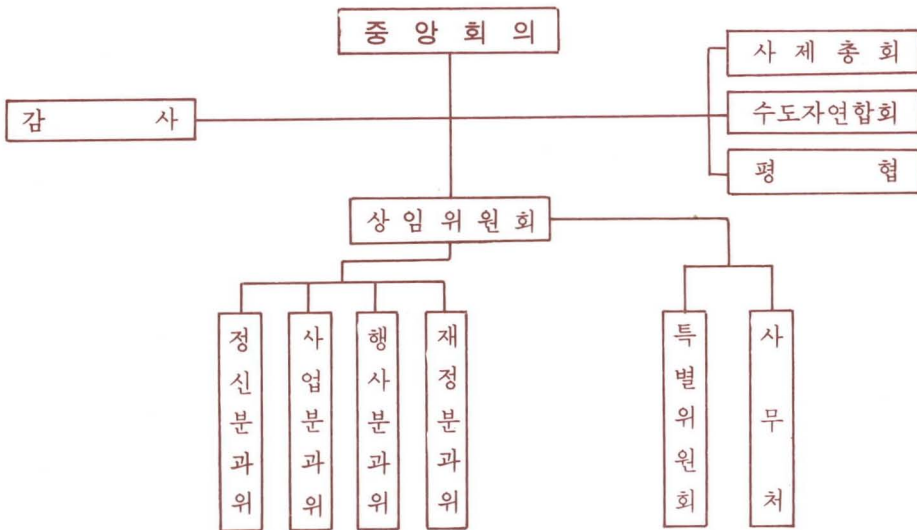
명예로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기 위해 새롭게 신심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중앙위원회 조직표

1987년은 교황 비오11세께서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교구를 방인 자치교구로 설정한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는 50주년을 보다 뜻깊게 맞이하고 이를 계기로 교구의 발전을 다짐하고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새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상을 정립,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를 구현코저 노력하고 있다.

지난 85년 3월에 이미 50주년기념 중앙위원회를 발족했고 5월 3일에는 50주년 기념 상임위원회에서 「자치교구 설정 50주년」기념규정을 정한바, 50주년기념 사업의 제반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구를 구성, 현재 이 조직에 의해 모든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중앙위원회 위원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께서 1985년 3월 25일부로 자치교구설정 50주년 기념 제반준비를 위한 교구 중앙위원을 위촉하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격려했다.

	중앙위원회				
성직자 (참사위원)	범석규 신부 문정현 신부 김용태 신부	김환철 신부 김병운 신부 김진소 신부	성민호 신부 박진량 신부 김동준 신부	김병엽 신부 김영신 신부 이종원 신부	서용복 신부 김봉희 신부
수도자 (수녀연합회)	이가브리엘라 수녀 송 크리스티나 수녀 (수녀연합회 회장단)				
평신도 (사목협의회 회원 중 위촉된자)	김인협(평협회장) 손병선(창인동)	양상열(전 평협회장) 조경만(둔율동)	조성호(전 평협회장) 김치덕(요촌)	김창호(남원)	
각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정신분과: 김진소 신부·김영철(숲정이)		사업분과: 범석규 신부·이종두(전동)		
	행사분과: 성민호 신부·한상갑(동산)		재정분과: 문정현 신부·오중원(중앙)		
실무담당(사무처)	사무: 김동준 신부(사목국장) 기획: 문규현 신부(교육국장)		재정: 김병운 신부(관리국장) 홍보: 김준호 신부(홍보국장)		

교 구 소 식

- ☆ **축! 견진(28일)**: 고창천주교회 오전 10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1. 사목방문: 23일(화) 오전 11시, 용안천주교회
 2. 베델서서 제4기 성서편 개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강사-김준호 신부님, 회비-2만원(1년분), 교재대-1만5천원
접수-교육국(☎0041), 개강-24일(수) 오후 7시30분
 3. 제7기 혼인강좌: 22일~26일(매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회비-3천원, 접수 및 문의-교육국(☎0041)
 4. 제10기 예비자교리 반개강: 일시-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접수 및 문의-교육국(☎0041)
 5. 9월 성소자 피정: 28일 오전 10시~오후 5시
주제-피 돌아보는 삶,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6. 9월 레지아 회의: 21일 오후 2시, 장소-전동천주교회 레지아 회의실
 7. 사제 어머니 성지순례: 22일(월), 모이는 장소-중앙성당과 전동성당
출발시간-11시, 지참물-도시락·복주
 8. 신앙생활을 위한 대피정: 일시-10월 1일 오전 9시40분~오후 9시40분
장소-중앙천주교회, 참석대상-모든 교우(예비교우 환영)
초청강사-김보록 신부님·한용희(전주 평협회장님), 참가비-1천원
준비물-성가집·복주·필기도구(점심 각자 해결)
피정내용-로사구의 묵상·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의 역할·“파티마의 기적” 영화
- **축! 영명: 성 마태오(21일)**-황인규·김진석·유종환 신부님
성 빈첸시오(27일)-이병호 신부님 축하합니다.

10만인 성지순례(오후 2시~5시)

일	요일	1코스: 전주 순정이 → 치명자산		2코스: 여산 순정이 → 친호 순교자묘지	
		담당신부	봉사자	담당신부	봉사자
21	일	김영진 신부	김성균·이영미	문규현 신부	연규식·양민우
27	토	오현택 신부	전중희·이명숙	김진소 신부	김진면·김해경
28	일	김동준 신부	연규식·양민우	박종상 신부	김성균·이영미

※ 가정기도 독서: 시편 67: 1~7 요한 10: 11~16

♣ 잠 간!

☆ 축하합니다-군산 둔물동 분당 「민남의 집」 개원

갈수록 서로 소원해지고, 심하면 남남이 되어 버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웃과 사랑을 통하여 교회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친교를 다지는 목적으로 「민남의 집」을 개원한 군산 둔물동분당(주임: 유장훈 신부).

지난 7일 문을 연 20여명 남짓의 이 만남의 집은 분당 빈첸시오회에서 운영 관리하는 데 주일날 미사후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단체들 회합후 회원들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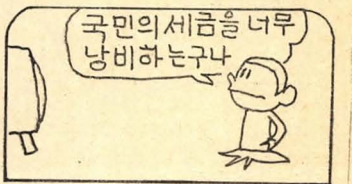
공동체란, 사람들간의 만남을 통해 실현되는 인격적 투신을 뜻한다. 그런 공동체가 결속을 도모하려면 그 구성원이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민남의 집」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사랑의 신비를 보여주는 모범 공동체를 기대해 본다.

☆ 4지구 어린이들, 가을 잔치 열려-

지난 주일(7일) 4지구(김제·정읍지구)에서는 주일학교 어린이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지구 신부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지구 교리교사 연합회(지도신부: 범영배) 주최로 열린 이 운동회는 9개 분당 45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 열띤 응원 속에 4개 종목(족구·이어달리기·뽕치볼·줄다리기)의 경기를 벌였는데, 정읍 시기동 분당이 종합우승했다고-(준우승: 김제 신평분당, 준준우승: 신태인분당).

교회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 활짝 웃으며 힘껏 뛰는 어린이들을 대견하게 바라 보셨을 신부님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상해 본다.

요심이 (685) 김병호



-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 특수 파티복 | 도매상
- * 고급 침구류 | 도매상
- * 각종 솜 일체 | 도매상
- * 커빈지 | 도매상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나비 커텐

염가봉사
라자가가 옆
선경커텐 종합전시장
전주시 중앙동 2가53-5
전화 82-2226
2-5198
박소화(테레사)

이경내과의원

내과전문의 이 경(안젤라)

호자동 삼거리

☎ 6-7188

김안과의원

부설: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호열 · 전은주(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 ·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1. 금주는 가정주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우리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2. 사목회 월례회: 25일 저녁미사 후 상임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3.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4. 구역봉사자 모임: 봉사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바람
- 5. 유아영세식: 27일 오후 3시
대부모님 모시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 6. 교무금 납부의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이 밀리지 않도록, 신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합시다
- 7. 공소 순회미사: 27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
- 8. 금주전례: 해설-최명자, 독서-봉헌-손소부 부부 신자기도-노영석 부부, 촛불봉헌-문명식 부부
- 차주전례: 해설-박중구, 독서-봉헌-김환창 부부 신자기도-노영규 부부, 촛불봉헌-임영빈 부부

□ 지난주 봉헌금: 교무금: 245,800원
신축금: 545,000원

- 6. 청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 7. 청년회 친선 등반대회: 10월 1일, 장소-만덕산
접수는 28일까지 총무님께 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113,150원 교무금: 1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 2. 유아세례식: 25일 오후 2시
- 3. 꾸리아: 28일 오후 2시
- 4. 사목회: 25일 오후 8시
- 5. 예비자 교리반: 학생-토요일 오후 6시
일반-일요일 공식미사 후, 화요일-7시30분
평화동성당-토요일 오전 9시
- 6. 공소미사: 28일
마을리-오후 3시, 광곡리-오후 2시
- 7. 금주전례
본 당: 해설-김배근, 독서-①진성복 ②조정웅
봉헌-유용산 부부
2성당: 해설-문치구, 독서-①김광탁 ②박병환
봉헌-강수중 부부

차주전례
본 당: 해설-김은경, 독서-①김한기 ②차진석
봉헌-김기업 부부
2성당: 해설-박병환, 독서-①김화영 ②오수환
봉헌-권학열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성당-118,550원, 본당-274,115원
계-392,665원 교무금: 61,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사목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2. 삼회(재속형재회): 다음주일 오후 2시
 - 3. 병자봉성체: 25·26일
 - 4. 유아세례: 27일(토) 저녁미사 전 6:30분
 - 5. 반회장 회의: 25일(목) 오전 10:30분
 - 6. 영세식: 28일(다음주일) 공식미사
 - 7. 집중교리(영세예정자): 22-27일 저녁 8시
 - 8.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공사 현금
형은영·최길례-500,000원, 임금혜·나학순·부녀회·
익명-300,000원, 익명·최수산나-200,000원, 오영
열·안정해·익명-100,000원, 최복순·정병선·오부용
-50,000원, 소재창-5,000원, 계-3,055,000원
누계-13,855,000원
 - 9. 금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조성호 ②천 건
봉헌-유영귀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희숙, 독서-①강기연 ②이상인
봉헌-안운정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5,030원 교무금: 509,45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사무실 83-5085번

-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 2. 레지아: 오늘 오후 2시
 - 3. 전동 울뜨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 4.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2시
 - 5. 일요일반 예비신자 교리는 10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 6. 13일 영세자 축하 환영식: 24일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062,700원 교무금: 558,0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1. 신자의 본분인 주일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평일미사 시간변경-월 아침 6시30분, 화~토-오후
7시30분,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2. 순정이 은인을 찾습니다: 1구좌 5천원
- 3. 감사합니다: 순정이 은인, 2구좌-송실·익명
1구좌-이준희·황상호·송봉덕
- 4. 본당 울뜨레아: 24일(수요일) 저녁미사 후
- 5. 주일 공식미사 30분 전에 성가연습: 신자 여러분은
성가책 필히 지참하셔서 성가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 1. 성지순례: ①천진암(한국 천주교회 발상지)
②회비-5천원
③신청-본당 사무실 21일까지
④일시-28일 오전 8시 출발
⑤본당미사-새벽 5시30분 미사만 있음
 - 2. 수요 성서 강좌: 창세기 2,3~11장
 - 3. 교리교사 모집: 신심깊고 용모 단정한 대학생 2명
 - 4. 중·고생 성지순례: 오늘 2시-해성학교에서 출발
 - 5. 본당 울뜨레아·자모회: 오늘 11시30분
 - 6. 은혜의 밤(철야기도회): 26일 밤 11시
- 지난주 봉헌금: 606,850원 교무금: 737,000원